

정원도시 순천, 추석연휴 관광객 52만 명 돌파

정원·전통문화 중심에서 생활권 전역으로 확산된 명절관광... 외식·숙박 매출 급상승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추석 연휴(10월 3~9일) 동안 52만여 명이 순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만 4천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순천이 여행하기 좋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휴에 순천 관광은 국가정원과 낙안읍성 등 전통 명소뿐 아니라 해룡 와온, 오전그린광장, 드라마촬영장 등 생활권 전역으로 확산된 점이 특징이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험형 여행이 본격화되며, 순천이 '명절에도 머무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 생활권 전역으로 확산된 명절콘텐츠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정원과 도심, 생활권 전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명절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가을동화 속 정원'을 주제로 약 30만 명이 방문하며 정원박람회 이후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정원과 습지를 잇는 '사운드 순천' 프로

그램은 자연의 소리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해 감성 치유형 관광콘텐츠로 호평받았다.

해룡 와온 일원에서는 남파랑길을 배경으로 한 '노을따라 걷개'와 '갯벌단풍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자연 속 걷기, 갯벌 생태체험, 칠면초 포토존,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걷기·감성·생태를 결합한 순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았다.

오전그린광장은 '순천's 갯벌런트', '감성데이(자두·원슈타인)' 등 공연으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도심형 축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예술인이 함께한 무대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형 축제 모델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낙안읍성에서는 '김빈길 장군 장국'과 전통놀이 공연이 열리며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한창기 기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한글



의 가치와 창의성을 즐겼다. 이처럼 정원과 도심, 문화시설 전역에서 세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축제형 명절 관광이 펼쳐졌다.

▶ 지역경제도 활짝... 외식·숙박 매출 급상승

명절 관광의 열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됐다.

연휴 내내 외식업 매출은 평소의 3~4배에 달했고, 일부 식당은 재료가 떨어지

일찍 문을 닫을 정도였다. 숙박시설도 국가정원과 순천만은 물론 조례동 등까지 만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며, 도심 전체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조례동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순천시가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오전그린광장, 와온해변 등 도시 구석구석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촘촘히 운영한 덕에 숙박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며 즐거워했다. 순천/경성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추석 연휴에만 3,600여 명 다녀가

10월 8일 일일 방문객(678명) 최다 경신, 가족 단위 이용객 많아

추석 연휴(10.3~10.9) 완도해양치유센터에 3,600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10월 8일에는 678명이 찾아 일일 최다 방문객 수를 경신했다.

연휴 기간 센터에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힐링 이벤트가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를 이용한 방문객은 "부모님, 가족 모두 다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서울에 살아서 바다 볼 일이 많지 않은데 탁 트인 바다도 실컷 보

고 명절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국 각지에서 센터를 찾은 방문객을 보며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절별, 시즌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황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청정한 해양 기후, 해조류, 해수, 머드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16개 테라피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로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이 1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은 지난 2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회장 선상규)가 주관하고, 김철우 보성군수, 문근주 국회의원,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50여 명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해 세대 간 존중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행사는 매년 해오던 틀에서 벗어나, 어르신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보성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국악으로 물드는 노인의 날, 어르신 덕분에 보성이 빛났다!

있는 축하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악과 무용, 합창 등으로 꾸며진 공연은 행사장을 국악의 선율로 물들이며 어르신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 연출은 '존경과 감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어

민 모두가 세대의 벽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노인 복지 시책 사업으로 △보성형 일자리 사업 100명, △사랑의 밤차 30개소, △사랑나눔 이불 판매방 600개소, △내동네 웃음주치의가 간다 30개소, △경로당 보성청춘미식회 프로그램 40개소,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고흥군, 제11회 고흥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대성황'

군민과 상인·관광객이 함께 어울린 전통시장 축제의 장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4일 고흥전통시장 천변 일원에서 '제11회 고흥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1,000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흥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했다.

특히, 명절 연휴를 맞아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힐링예술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교육발전기금 기탁식, 초청 가수 특별 공연, 7080 디제잉, 과격적인 경품 이벤트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행사장 외부에는 농산물 할인 판매 부스, 전통시장 인기 먹거리와 청년 상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한 퓨전 간식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가 큰 인기를 끌었다.

박형호 상인회장은 개회사에서 "어울

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오는 11월 유자 축제 기간에 개관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와 함께 상생하는 열린 경제공간으로 거듭나는 고흥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고흥전통시장은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고흥 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고, 숯불생선구이라는 명물로 전국에 알려진 고흥의 대표 전통시장이다"라며 "생선건조장 증축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세척장 신설과 어물전 정비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별별야시장'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고흥전통시장 천변 일원에서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원 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의견 청취

추석맞이 강진상가 방문 소상공인 격려 및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원 강진군수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강진상가를 방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 강진군을 관광하는 나들이객 등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김동삼 강진군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영관 강진 상가변영회장 등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강진읍 상가 약 80개소의 문을 두드리며 일일이 상인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주고받았다.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전방에서 영입하는 강진군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진군민의 지역 축제, 반값 강진여행, 공공배달앱 먹거리 활성화 등 강진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진군은 긴 추석 연휴 특수 등 소비 진작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상향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양군, '마음건강 고(GO)! 걷기 기부챌린지' 운영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걷기 기부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고(GO)! 걷기 기부챌린지'는 군민이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며 정신건강 증진과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행사다.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7천만 보의 공동걸음을 목표로 진행한다.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관내 아동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부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 사전 예약은 10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워크 온'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이후 전체 커뮤니티에서 담양군을 검색하고 담양군 공식 커뮤니티를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생각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갈 같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볼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기어오르려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알아야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밀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해
 새삼스러
 한 드는 기
 몇 장이나 될까,
 잠시
 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풍만한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한 사람,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겠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젠가 우연치
 않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